

“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

■ 이종윤 원로목사

마태복음 11:29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야’ 교회가 하나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빌 2:5) 그 겸손은 세상의 어떤 겸손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이요, 그가 보여 주셨고 실천해 주셨던 겸손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려는 제자들만이 이 겸손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성도의 발을 닦아주어야 할 자리에 앉아 오만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명령과 대접이나 받고 있다면 그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동일하신 존재라는 뜻이다. 제2위 신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다. ‘본체시냐’는 영어로 과거 시상으로 번역되었으나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분사형 즉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는 성육신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소위 사신(死神)신학이 나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것이 신화라면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하실 때 그 목숨은 헬라어로 ‘조예’(생명)가 아닌 ‘프시케’(자아)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이 있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주권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애크를 써서 취하려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쏟아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계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경우 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의 겸손을 흠모하고 찬양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종된 사람의 형체를 덧입고 계신 것이다. 神·人 양성의 기독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다. 케노시스(비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는 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케 된다. 도케티시즘(가현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고 영적으로 오셨다는 가현설은 기독교 이단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함, 영광, 존귀함, 권능을 다 보여 주셨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을 감추시고 자기 능력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 ‘자기를 비어’라는 겸손의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다. 종의 형체(헬.물페) 즉 그리스도의 지상 존재 형태가 복종과 천대와 멀리로 특징지어진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고 구원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우리 사랑과 겸손의 절대 모델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 지혜와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과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모양은 본체와 형체와는 달리 다소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본래적이 아닌 형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이었고 그 자체가 겸손의 표상이 되신 것이다. 겸손과 복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인간의 모든 겸손은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교만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복종은 십자가의 복종에 비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종과 겸손의 극치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지 못함으로, 교회 연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486호] 2015년 12월 19일 발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이어 서울지역 특히 서울교회 인근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부득이 정부와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선 이번 주일 전체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대신 주일 1부 예배시간에 목사 장로 직원 등 소수의 인원만 모여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여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벽기도회도 별도 공지 시까지 부목사님의 인터넷 영상말씀으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는 보내드릴 순서지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되 설교순서에는 서울교회 유튜브 설교영상으로 대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생방송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9시, 아래에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정상 1부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2부나 3부 또는 편리한 시간에 아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은 사무국(02-558-1106)으로 연락하여 별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비록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주시고 아울러 온종일 주일성수의 거룩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안내하여 드린대로 영유아유치부, 유치동부는 부서 해당 교역자들이 SNS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5분 메시지로 대신하며, 사랑부는 가정에서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평해(사야사),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영옥(인도), 서광중 이상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나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이(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토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티비로, 필리핀, 프르산도, 수레시, 수버스, 일로로,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통, 수란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교) //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카스키르)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교회 ”

■ 고전 1:1-3

본문에서는 교회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라고 지칭하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색과 구성원들에 대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임에도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면서 타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교회 모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과,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인 것과 모든 교회는 주님의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교회는 인간들의 사고나 뜻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설립했던 개척 멤버였든, 예배당 건축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건, 또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는데 힘을 보탠 전도사라 할지라도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주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완성을 향해 가는 미완성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완성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세상적인 원망을 하지 말고 스스로 절제하고 겸손하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가는 자 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하며,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 교회의 구성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들을 거룩하고,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골 1:21-22)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성화의 과정으로 성경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요만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벧후 1:4)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 규정한다면,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 고백하며 따르는 곳은 모두가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의 교회가 됩니다.

맺는 말

타인을 위한 기도는 너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음과 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서로 간 돕고 살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온 지구촌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기도로써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들을 의뢰함보다 낫고, 하나님을 의지함 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더 낫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증거 할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임상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입례송 Prelude 오르가나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40: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4(사순절 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5(2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렘 29:11-1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391(446)...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례홍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8:1 인 도 자
 찬 송 380(42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단 3:13-18 인 도 자
 설 교 ... “믿음으로 산다는 것” ... 인터넷 영상
 찬 송 212(347)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알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521명	162명	91명	774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2/2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2월23일	헌 금	21,546,00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례		13,920,000
	급 여		33,084,000
	교회학교사례		7,570,000
	교회학교운영비		1,396,200
	선 교 비		34,000,500
	구 제 비		50,000
	경 조 비		108,000
	비전2020		5,680,000
	출 판 비		1,250,000
	인 건 비		6,072,000
	복리후생비		71,500
	통 신 비		579,830
	수도광열비		885,750
	차량유지비		459,500
	도서인쇄비		525,000
	사무용품비		26,700
	소모품비		397,880
	환경유지비		200,000
	수선유지비		272,250
	식당운영비		891,370
	합 계	21,546,000	134,387,480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나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전 1:3)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